

방송단신

한사람 한경관 후원운동

BBS 문화유산의 해 특집 생방송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나다'가 지난 7일 방송됐다.

이번 특집은 유네스코가 지정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해오고 있는 (사)장경도량 고려대 장경연구소(소장 정림스님)가 불교방송 중앙일보와 함께 펼치고 있는 '21세기 팔만대장경'의 팔만후원인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돌알의...' 비디오 출시

불교TV 영상포로사업단은 지난 1일 '돌알의 잣나무'(1집)와 'TV법회'를 비디오로 출시했다. '돌 알의 잣나무' 시리즈 1집은 월하(조계종 종정) 서용(고불총림 방장) 석주(철보사 조실) 월산(불국선원 조실)스님 등 총 10편으로 구성됐다. (02)3272-0781~5

한마음선원 법회 찾아

불교TV의 어린이 프로그램 '신나는 연꽃동산'(PD 김민석)이 오는 10일 '신나는 찬불동요'(진행자 이상훈) 코너에서 한마음선원 어린이법회를 찾아가는다. '노래하는 생활'을 주제로 한바탕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매주 월·목 오후 4시20분에 방송.

“찬불가 대중화 나섰다”

가수법사 김태곤

석굴암 주제 작곡 한창 봉원사 범음대학서 범패공부 동대 불교음악 석사과정



◇전법사 종수를 받은 김태곤 씨는 최근 범패공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전통음악인 범패는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지금 석굴암을 주제로 찬불가를 작곡하고 있는데 범패의 기품을 응용해 보려고 합니다.”

대금을 연주하며 전통음악에 관심을 보여온 '송학사'의 주인공인 (가)김태곤씨는 봉원사 범음대학에서 송암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보유자)에게 범패를 공부하고 있다. 근절은 그의 법명.

10년간 송암스님과의 인연으로 범패에 관심을 갖게됐다는 김씨는 지난 3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음악 석사과정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불교음악공부에 뛰어들었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작곡하고 싶다는 김씨는 “불자들이 '아담법석 찬불가'를 노래하며 신상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범패공부도 찬불가 작곡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법사 종수까지 받아 포교에 더욱 사명감을 느끼게 됐다는 김태곤씨는 “전통불교음악이 가미된 찬불가작곡에 힘써 찬불가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지연 기자

불교TV '황룡사 대종찾기' 제작

기록 토대 컴퓨터 재현... 탐사현장도 취재

경주시가 황룡사 대종찾기에 착수하는 등 황룡사 대종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TV가 황룡 특집다큐멘터리 2부작 '황룡사 대종을 찾아라'(PD 최세영) 제작에 한창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록으로만 내려

오는 세계 최대의 종인 황룡사 대종을 찾는 과정을 통해 종의 문화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잊혀진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자각심을 일깨운다는 기획의도로 만들어진다.

1부에서는 신라인의 대종주조와 관련된 문화사적 의미를 짚어보며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종의 고유 모양 형태 규모 주조방법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2부에서는 종탑사기를 통해와 같은 사지 매립지로 나눠 일지형식으로 무꾼다.

이영배 교수(사육대), 권오찬 위원(경주문화원), 김상현 교수(동국대), 이원식 소장(원인고대성역연구소) 등이 고증작업을 맡는다. (연)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조건없이 사는 삶 (3·꽃) (특별상)

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날 꿈에서였다. 눈이 시도록 하얀 들녘에 기차길이 있는데 그 철로에서 시아버님이 나를 보시더니 손을 흔들시는 것이었다. 마치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하시는 것 같았다. 서둘러 올라와서도 나는 그와는 다른 꿈에 가끔 시달린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주 에수를 받으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그 즈음 나는 이유없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 움직이지 못했다. 번역하던 책도 인쇄문제로 무산되어 버렸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학문과 관련된 모든 욕망을 끊고 그야말로 '허물 게 되겠다' 하는 식으로 맘 편히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두달이 채 못되어 속이 매스꺼움을 느꼈다. 간이 나쁘게 아나가 하여 병원을 찾아 갔더니 격정과는 달리 임신이라는 것이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고통을 모두 잊게 할 만큼 반가운 것이었다. 힘들게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것이어서 조심하면서 생활했다. 한달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느날 밤에 하혈을 하기 시작한

경을 들었는데 그 경의는 설화에서부터 교관론까지. 원시불교에서부터 독립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핵심은 '제아막작, 중성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즉 '중도(中道)'인 것 같았다. 스님의 경의를 들으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정화되는 것을 실감한다. 살면서 이리 부딪치고 지리 부딪치며 피그리진 나를 바로 세워 균형 잡아가고 경정을 찾게 해주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노심초사하며 일을 추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한 습관을 서서히 벗어 던지는데 스님의 말씀은 매우 효과가 있었다.

최근에는 교수공채 공고도 뜰새를 뵈면 아니라 대학개혁의 일환으로 학부제가 실시되면서 감사에게 돌아오는 강의가 점점 줄어들고



그림·이준석

“유산·우울증 시달리다 경전 의지하니 이젠 조건없는 삶을...”

다. 놀라 병원에 연락을 하였더니 '그럴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내일 아침에 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새벽까지 나는 심한 주기적인 복통과 함께 하혈을 계속하였고 그렇게 나의 꿈은 사라졌다.

생선없는 상고를 치른 뒤 내게는 심한 우울증과 한여름인데도 손발이 시리는 증세가 찾아왔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 나는 작은 일에도 눈물을 보이고 서서히 내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의 권유대로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강경독송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소한 10독은 해야 하고 마음먹었지만 금강경이 워낙 길다보니 잘 되지 않았다. 돌아가신 아버님들을 생각하며 지장경을 읽었다. 지장경을 읽는 동안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마음 속의 응어리도 함께 빠져나가는 듯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동안 지장경 독송과 반야심경 사경을 함께 하였다. 그렇게 한달을 보내니 차차 안정이 되었다.

비로 그즈음에 가산불교문화원과 인연을 맺게 됐다. 지난 르스님의 강의로 진행되는 화엄

있는 상황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러한 사실 또한 커다란 스트레스였겠지만 지금은 약간 다르다.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 10년간 나를 지배했던 나의 어리석었던 계획,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결혼을 마루고 교수가 되어서 불교관련 논문을 쓰겠다는 것 등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꽤 오랜기간동안 나는 조건불이고 따지기를 즐겨하고 원인과 결과 분석에 익숙해 있었다.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인연생기법(因緣生起法)을 좋아했으나 이제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되 조건없이 사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몇달 전부터는 대학불교학생회의 종문회에서 한달에 한 번씩 나오는 회보에 글을 쓰고 있다. 주범으로부터 '바보한테 고생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위안이고 기쁨이다. 그것은 내가 쓰고 싶었던 논문의 밑거름이며, 그동안의 부처님의 가르치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무애심 (서울 연평구 신시2동)

◆ The wise man wanders about with his organs of sense guarded, and his senses conquered, standing firm in Dhamma, delighting in what is right and mild; having overcome all ties and left behind all pain, he does not cling to what is seen and heard.

감관을 지키고 감각을 억제하며 행하라. 법을 확립하고 바르고 솔직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떠나 모든 고통을 버린 어진이는 보고 듣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 Whosoever uses words to friends without effect, the wise know as one that only talks, but does not

do anything. 모든 친구에게 실적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어진이는 알고 있다.

◆ Having tasted the sweetness of seclusion and tranquility one becomes free from fear and free from sin, drinking in the sweetness of the Dhamma. 온둔과 경정의 맛을 아는 이는 고뇌와 괴업에서 벗어나 법향(法香)을 즐긴다.

◆ Giving aims, living religiously, protecting relatives, blameless deeds, this is the highest blessing. 보시와 이치에 맞는 행위와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과 비난을 받지 않는 행위,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 Those who know whence it sin arises, drive it away. 반뇌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번뇌를 버릴 수 있다.

◆ A Bhikkhu who delights in

quarrelling and is shrouded in folly, does not understand that sin is the way leading to hell. 말다툼을 즐기고 우매한 성미로 덮여 있는 수행자는 번뇌가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알지 못한다.

*organ (n) 기관, organ of sense: 감각
*firm (a) 확고한, 반치않는
*mild (a) 온화한, 관대한
*sing (v) 칭찬하다, 찬양하다
*meditation (n) 명문, 한겨(禪定)
*tranquility (n) 평정, 고요함
*aim (n) 자선 기부금 giving aim 보시
*whenever (adv) 어떻게, 왜
*quarrel (n) 말다툼, 시비
*shroud (v) 가리다, 덮다, 싸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65)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6년판

현대 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 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 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 불교신문사 (대)737-8881

하늘에 핀 인꽃

봉축행사의 대미를 이루는 축제의 장엄물

讚佛애드벌룬



■ 규격 : 지름(280cm) 둘레(880cm)
■ 현수막 : 기본 90cm x 6m 선형 90cm x 8m (20,000원 추가)
■ 보급가격 : ₩480,000(현수막 기본 9m포함) 전화주시면 설치하여 드립니다 (인원은 출장비 추가)

본 애드벌룬은 사용후 보관하셨다가 행사때마다 다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봉축등



● 찬불등 불교기 상징의 오색등으로 화려한 수시로 장식된 원통형 주름등입니다.

● 전통등 선을 묶는 마음을 소를 찾는 마음에 비유한 십우도의 원통형 등

● 연등 화려한 연화무늬 종선 등으로 가운데 원통이 들어 있어 전구나 촛불을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팔상등 과노라미와 같은 부처님의 생애를 화려하게 표현한 팔상성도의 팔각형등(석가세존일대기)

봉축현수막



■ 단청취장 : 크기 및 보급가격(90cm x 6m) ₩40,000 / (90cm x 8m) ₩50,000



■ 불고기(오색)취장 : 크기 및 보급가격(90cm x 6m) ₩40,000 / (90cm x 8m) ₩50,000

봉축리본



■ 가격 (대) 100매 ₩30,000 (중) 100매 ₩25,000 (소) 100매 ₩25,000
■ 10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물을 넣어드립니다.

기획제작 三田佛事 電話 : (02)732-6095~6 FAX : (02)735-5 2 9 3